

(재)정원장학복지재단 김용만 이사장, 지스트 발전기금 기탁

- 23일 기탁식 개최...우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해 학생 장학금으로 1천만 원 기탁



▲ 23일(금) 오전 11시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김기선 총장, 전창덕 연구원장 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'(재)정원장학복지재단의 발전기금 기탁식' 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. (왼쪽에서 네 번째) (재)정원장학복지재단 김용만 이사장과 지스트 김기선 총장

광주 승덕고등학교 학교법인인 **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이 (재)정원(正元)장학복지재단을 통해**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**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 김기선)에 1천만 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했다.**

기탁식은 12월 23일(금)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김기선 총장, 전창덕 연구원장 등 지스트와 (재)정원장학복지재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

(재)정원장학복지재단은 청송학원 승덕고등학교 설립자인 김길수 선생이 부모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**지난 2000년 3월 설립했으며, 그동안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.**

특히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, 고아, 미혼모가정, 다문화가정, 불우청소년, 무의탁 노인과 그 보호시설에 **후원금과 물품을 후원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.**

2대 김용만 이사장 취임 후, 장학사업과 사업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 올해 지스트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.

(재)정원장학복지재단의 김용만 이사장은 “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지스트 학생 중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그들의 학업을 아낌없이 지원하여 더 큰 인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”고 말했다.

김기선 총장은 “지스트의 인재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김용만 이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”며 “내년에 설립 30주년을 맞는 지스트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연구와 교육 및 지역 혁신에 매진하겠다”고 말했다.